



개회사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조 유지

장 영 식

대회장·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존** 경하는 서정옥 과학기술부 장관님, 이 대회에 참가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4회 연차대회를 맞이하여 대회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연차대회에 국제 원자력계 대표를 비롯하여 국내외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장 피에르 루조(Jang-Pierre Rougeau) 유럽원자력산업회의 회장님, 에드워드 퀸(Edward L. Quinn) 미국원자력학회 회장님, 쉰 유밍(徐玉明) 중국국가원자능기구 부주임님, 수미 요시히코(鷲見禎彦)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원자력개발대책회의 위원장님, 머리 스투어트(Murray J. Stewart) 캐나다원자력산업협회 회장님, 도미니크 마이야(Dominique Maillard) 프랑스공업성 에너지자원총괄국장님, 그 밖의 해외 인사 여러분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IMF 관리 밑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우리 경제는 이제 위기의 터널을 지나 경제 선행 지수가 좋아지는 등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 환관 이후 1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로부터 투자 적격의 평가를 받았으며, 가용 외자 보유액도 현재 541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IMF 차관은 41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도 산업용 전력 수요 성장율이 7~9%임을 감안할 때 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14기의 원전이 운전중이며,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 중인 2기를 합쳐 모두 8기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30만kW급 차세대 원자로의 건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경에는 상업 운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 산업도 투명한 운영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경제성을 실증해 보이고, 국민의 저변에서부터 에너지와 원자력 그리고 원자력과 지구 환경의 상관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EDO 사업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국제적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의 70% 이상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의 본래 목적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따라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간에 경제 협력의 문을 열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의 평화 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역사적 의미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북한을 망라한 의욕적인 원자력 개발 계획은 우리 나라만의 특수한 사업입니다.

우리 나라는 원전 운영의 성과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 14기 설비 용량은 1,208만kW이고 원전 이용률은 90.2%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발전량은 98년도에 896억kWh로서 전체 발전량의 41.7%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지난 20여년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고 경제성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운전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모든 원자력 국가와 긴밀한 국제 협력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아시아 지역 원자력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원자력은 전력의 생산뿐 아니라 온실 가스의 억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온 세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에너지 총소비량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운전중인 원전 유니트에 대한 철저한 보수와 예방 정비는 물론, 원전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원전 유니트에 대해서는 더욱더 안전성과 신뢰성에 중점을 두어 공사를 진행시킴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원자력 발전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나라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 이념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병행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햇볕 정책에 따라 북한 함경남도 신포의 한국형 원전 건설, 금강산 개방, 비료 보내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의 건국' 운동의 일환입니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 산업도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시장의 개방과 경쟁 체제',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 정책의 추진'이라는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운영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경제성을 실증해 보이고, 국민의 저변에서부터 에너지와 원자력 그리고 원자력과 지구 환경의 상관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은 평화적 이용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절대적이며, 그러한 평화적 목적 이외의 원자력 이용, 예를 들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 드립니다.

이번 연차대회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대회 주제를 '원자력과 지구 환경'으로 설정했습니다. 첫째로, 개회 세션에서는 각국의 원자력 지도자를 모시고 세계 각국의 원자력 현황과 당면 문제에 대한 특별 강연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각 세션에서는 기후 변화와 원자력, 원전 신기술 개발과 건설 등 원자력 이용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하여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차대회가 그 동안 원자력 이용 분야에서 대두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기법 및 신기술의 실증과 적용에 큰 도움이 되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